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799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열매 맺는 나무

신앙과 회개, 이 두 가지는 사순절의 주제이며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 생활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주일이 되어서 미사를 드리려고 거리에 있던 교통경찰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근처에 성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몇 블록이 떨어진 성당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길을 걷다가 자기가 있는 근처에도 성당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블록 안에도 성당이 있는데, 왜 저 먼 곳에 있는 성당을 제게 가르쳐주었습니까?”

그때 경찰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느 성당이 좋은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교통정리를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저 먼 성당에서 나오는 분들의 얼굴이 제일 밝고 기쁨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순 제3주일의 성경말씀을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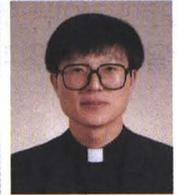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3절)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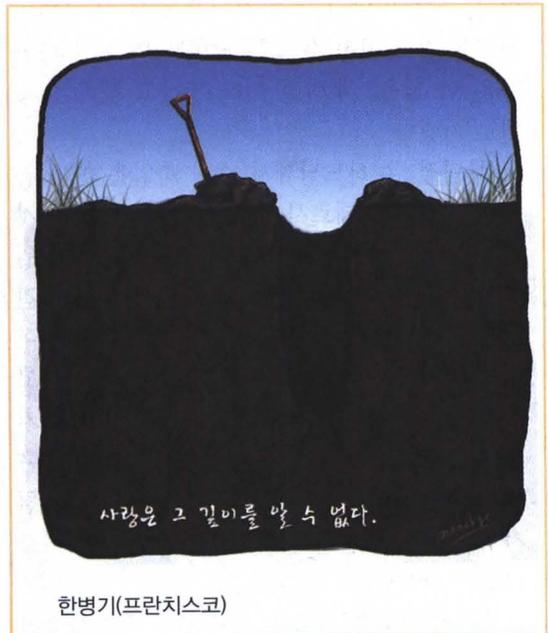
세상의 많은 독재자들이 망한 것은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썩은 열매만을 맺으면서도 하늘 무서운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불의 앞에 항거해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외쳐야 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얼굴이 구원의 희망으로 가득 차 밝고 기쁨이 넘치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박종충 신부
(임실 성당 주임)

숲머리 생각



* 강론을 담당하신 신부님께서 최근 증명사진(또는 편안한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림절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모르도카이는 왕국 각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가리지 않고 전갈을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십 사일과 십 오일을 축일로 지키라고 지시하였다.” (에스 9,20)

에스테르기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는 귀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본 역사는 아니지만 이방에서 체험한 특별한 사건이었다. 하느님 백성의 명맥



을 이어온 유다인들이 전멸될 위기를 맞았다가 왕후 에스테르의 모험으로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민족 전체가 겪은 이 구원의 체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유다인들은 이 날을 ‘부림절’이라 칭하고 해마다 축일로 지켰다.

‘부림절’은 하느님께서 주신 축일은 아니다. 구원을 체험한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부림절을 지키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느님을 기렸다. 에스테르의 공로가 크긴 했으나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만이 파라오라도 된 듯 음모를 꾸미고 유다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왕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은 놀라기만 하였다. 말아들을 치던 하느님의 천사처럼 진노의 불길은 악인에게 떨어졌고 이스라엘은 살아났다.

사람이 살되 지난날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

다. 구원의 체험을 깨닫고 감사드리는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영혼과 가슴속에 새겨진 체험이야말로 감격을 붙잡는 분명한 표가 된다. 하지만 망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몸으로 체험된 깨우침으로서 길이 간직될 필요가 있다. 세월은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만 하느님의 업적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이라는 평면에 밀착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구원의 업적을 준 사건들은 언제나 어제 아니라 오늘 이어야 한다.

부림절은 이스라엘이 멸망에서 구원된 날이다. 그 옛날 조상들이 예집트를 나와 홍해바다를 건넜듯 그들도 죽음을 넘어 생명을 얻었다. 하느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오늘의 회상은 아무래도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다. 이스라엘이어도 좋고 한 개인이어도 좋다. 하느님의 구원이 있는 한 인생에 희망이 있다.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한 절망은 없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부림절을 기념했듯 우리도 잊지 못할 구원의 체험 하나쯤은 길이 간직해야 할 것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잠재된 가능성과 아이들



박은재(보나)
가정사목 상담자

한 부모님이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상담실을 찾아왔다. 아이가 자신감이 없고 늘 위축되어 있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부모 없이 혼자서는 밖에 나가려고도, 잠도 자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부모님의 성향도 아이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부모님 역시 활발하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만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게 하려고 아기 때부터 애를 썼지만, 결국 자신보다 더 심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싫어하는 모습이 자기 자녀에게서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부모님 역시 자신의 싫어하는 모습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성향이라 아이의 작은 실수나 잘못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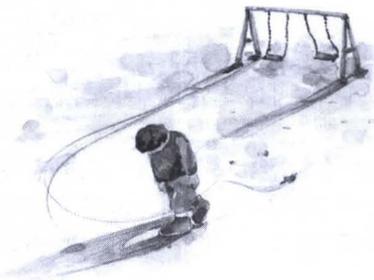
를 무시한다니까!’
자녀는 부모의 예민한 반응에 위축되어 자그마한 실수도 하지 않으려 애쓰게 되면서 점차

모든 일에 의기소침하게 된다. 그러면 부모는 ‘봐, 내가 뭐랬어? 조심하라 했지?’ 하면서 아이에게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이 타당함을 확인시킨다.

아직 어린 자녀는 세상과 자신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통찰력도 부족하기에 세상과 자신에 대한 경험이나 분별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즉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부모가 자녀의 작은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각시켜준 모습을 자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자기 가치감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부모님이 부각시켜준 아이의 모습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의 내면에 있는 몇 개 안되는 작은 점일 수 있다. 즉 부모님의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성향이 아이의 더 많은 가능성의 부분을 보고 반응하기 보다는 몇 개 안되는 작은 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듯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반응행동으로 자녀의 잠재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것, 유연성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태도에서 내 안의, 내 이웃안의 하느님의 창조된 가능성을 살리는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입당송 시편 25(24),15-16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탈출 3,1-8ㄷ.13-15

회답송 시편 103(102),1-2,3-4,6-7,8과 11(87)

◎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도다.

제2독서 1코린 10,1-6,10-12

복음 환호송 마태 4,17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루카 13,1-9

영성체송 시편 84(83),4-5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주님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치나이다.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 해성고 입학식 특강



학교법인 해성학원(이사장=이병호 주교)의 입학식이 3월 2일(금)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치러졌다. 오후 2시 전주 해성고 입학식에 참석한 이병호 주교는 “나, 하고 얘기 좀 하자!”며 친근한 미소로 267명의 새내기들을 반갑게 맞아 특강을 하였다.

이주교는 “NON SIBI(라틴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두 단어를 주제로 평생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열려있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회에 봉사하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절대로 굶어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두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 살아 갈 것”을 권하였다. 또한 “얼굴은 몸 속에 있는 마음의 모니터로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게 얼굴에 나타나고 모든 게 잘 풀린다”고 강조했다.

해성학원의 교육이념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인간이다. | 서송원 기자

● 전주교구 지휘자회 성주간 전례음악 특강

전주교구 지휘자회(지도=김광태 사목국장 신부)는 지난 3월 4일(주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3층 강당에서 박문정 모니카 수녀의 성주간 전례와 전례음악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25개 본당 30여명의 지휘자와 반주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님 수난 성지주일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삼일의 전례의 의미와 전례적인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이 시기에 주로 부르는 전례곡의 소개와 부르면서 주의해야할 사항등의 강의가 두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더불어 전주교구 가톨릭 합창단 단장의 NWC 사용법 강의가 있었다.

격월로 정기모임을 갖는 지휘자회는 이날이 두 번째 모임이었으며 모임 때마다 주제를 정하여 강의를 듣고 성음악을 배워볼 계획이어서 각 본당 성가대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홍보국 정리

● 빈첸시오의 집 어르신 견진성사



빈첸시오의 집(지도=이재후 신부) 어르신 12명과 직원 2명이 지난 3월 4일 고산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았다.

빈첸시오의 집은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이사장=이병호 주교)에서 운영하는 무료노인요양시설로서 연로하여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어려운 환경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으로, 주교님의 애정속에 주로 전주, 삼례에서 많은 신자들의 봉사자와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심신장애와 연로하신 관계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고산 성당(주임=권순호 신부)의 배려로 본요양원에서 1주일간 특별견진교리를 받은 후 이번 견진성사를 받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견진성사를 받고 친잔난만하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흐뭇하게 했다. | 홍보국 정리

부동산 경매 실전 재테크

- 수강 회원 모집 -

기간 : 2개월 과정(3~4월)
모집반 : 주, 아간반(소수정원제)/주 2회
학습관 : 중화산동 터틀 뒷편
문의 : 229-1113 / 019-526-1490
플러스 옵션
박상용(안토니오)

젠민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랑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야외주차장 앞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대장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 · 변비 · 유방클리닉
전문의 최성(알루가)
전문의 안혜선(사도요한)
전문의 이철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 ☎(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호성냉동

·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커텐 · 버섯재배 설치

양태수(우왕) · 김경남(마리아)
☎(063)242-4959 H·P 011-659-8085

유* 사랑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 앞
☎(063)253-6075



● **오릉동 성당 사순특강**

오릉동 성당(주임=이수현 신부)은 지난 3월 4일(주일) 예수고난회 신학원(서울 돈암동 수도원) 오성균 신부를 초청하여 '사순은 하느님 사랑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특강을 실시했다.

"사순기간 동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모습이 하느님을 닮아 갈 것이다. 또,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여유롭게 웃으며 살아가자" 고 당부했다. 김용운 기자

● **청년성서 만남의 잔치**

청년성서(지도=양재식 교육국 부국장 신부) 만남의 잔치가 3월 4일(주일) 전주 중앙 성당에서 열렸다. 청년성서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겨울 41차가 되었다. 청년들은 구약의 창세기, 탈출기, 신약의 마르코 복음의 토론, 특강 및 전례를 통한 과정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청년 성서 그룹 사운드의 다양한 미사곡과 수화 및 율동을 곁들인 만남의 잔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주교님 집전의 미사를 끝으로 이루어졌다. 김택수 기자

● **나은 2동 성당 선교교육**

군산 나은 2동 성당(주임=이덕근 신부)은 공동체 선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난 2월 28일(수) 이후상(요셉, 우전 성당)형제를 초청하여 선교 체험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상 형제는 '선교의 기쁨' 을 주제로, 예전에 방황하던 삶에서 하느님을 만나 변화되어 기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본당 공동체는 강의에 이어서 선교 발대식을 갖고 모든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현숙 기자

● **무진장지역 레지오간부 교육**

무주, 진안, 장수, 장계 성당 레지오 브레시디움 간

부 교육이 지난 4일 진안 성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무진장지역 레지오 브레시디움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등 간부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주 레지오 강상근 미카엘 단장이 실시한 이날 교육은 레지오 간부들의 역할에 대해 이루어 졌다. 우연태 기자

● **장계 성당 내적여정 기본과정 1단계 연수**

장계 성당(주임=엄기봉 신부)은 지난 2월25일 교중미사 후 내적여정 기본과정 1단계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사목회원과 신심단체 회원 및 일반신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됐다. 한국애니어그램연구소 박정자 수녀를 초청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박수녀는 내적여정의 목적은 자신의 성격 유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참 나로 나아가는 자신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우연태 기자

● **김순태 신부님 모친상**



김순태 신부(군산 팔마 성당 주임) 모친 김이례(분다) 자매가 지난 3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성 바오로 복지병원에서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89세. 고인의 장례미사는 3월 6일 오전 10시 군산시 경장동 팔마 성당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 주례와 교구 사제단 합동으로 봉헌됐으며, 유해는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공소 묘지에 안장됐다. 이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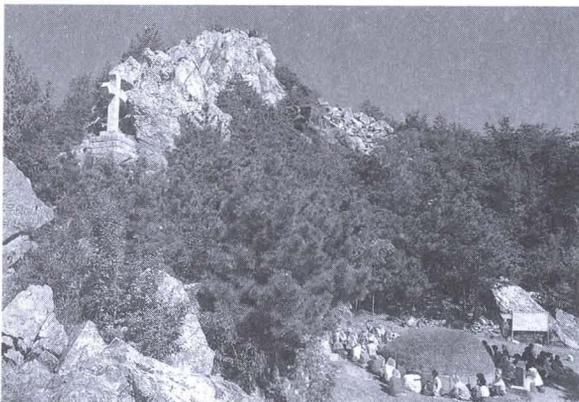
<p>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p>	<p>제127차 성지순례 이집트/이탈리아/바티칸 출발 : 2007년 5월 25일~6월 4일(10박 11일) 매일 미사 드립니다. 전 일 관 광 조 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p>	<p>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p>	<p>귀국 선교사 프로그램 · 대상 :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때 : 4월 16일(월)~20일(금) 5박 6일 · 주최 : 해외선교사 교육협의회 · 문의 : 02)953-0613</p>
<p>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 학 종 로 약 국 약사 정귀권(요셉) 배석환(엘리아) 한중옥(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p>	<p>O. K. 장수사과원 분양 정완모(베드로) · 이숙민(아녜스) 홍로 단일품종 장수군 계내면 금덕리 24-5 063-274-3635, 010-3905-3635</p>	<p>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자음악회 · 일시 : 3월 24일(토)~25일(주일) · 장소 : 대구 본원 · 문의 : 016-649-2045</p>	<p>가톨릭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제2회 미래 환경 마라톤 대회 · 일시 : 5월 13일(주일) 오전 9시 30분 출발 · 신청 : 4월 13일(금)까지 선착순 5,000명 · 종목 : 하프(21.0975km), 10km, 5km · 참가비 : 하프, 10km - 30,000원 5km - 20,000원 · 접수 : 인터넷 접수 (www.mirinaemarathon.co.kr)</p>

새 가톨릭센터 공간의

- 전주의 역사문

1. 승암산의 종교성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였다. 전주는 원래 백제 땅이었는데 백제가 멸망한 후 신라에 속하였으나 신라말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서남지방에서 봉기한 견훤장군은 900년에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스스로 후백제 왕이라 칭하였다. 견훤은 승암산의 동고산성에 왕궁 터를 두고 936년(고려태조 19년) 멸망할 때까지 37년간 후백제를 유지하였다.



치명자산 순교자 묘역

승암산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승암산, 동고산, 치명자산이 그것이다. 이 이름들에는 역사적, 종교적 상징성들이 다양하게 온축(蘊蓄)되어 있다. 역사가들은 전주를 수호하는 성황사(城隍司)가 있어 성황산이라 부르던 것이 승황산으로, 다시 승암산으로 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성황산은 성황사가 있던 산이라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성황사는 견훤의 왕궁건물지가 있는 곳 바로 밑에 위치하였다. 성황사는 전주성을 지키는 성황신을 모신 곳이며, 관(官)에서 해마다 제사를 거행하며 안녕과 풍요를 빌었다. 그리고 기복적인 민간신앙의 대상으로도 신앙이

깊었다. 이처럼 승암산은 성황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동고산은 사고사찰(四固寺, 혹은 司高寺)에서 생긴 이름이다. 전주에는 동·서·남·북에 사찰이 있었다. 동고사(東固寺)는 기린봉 기슭에 있었다고도 하고 승암산 중턱에 있었다고도 전한다. 서고사(西固寺)는 황방산에, 남고사(南固寺)는 남고산 중턱에, 북고사(北固寺)는 어은동 속칭 범바위, 오늘의 진북사이다. 이와같이 동고산은 불교문화와 관계를 갖고 있다.

치명자산은 천주교 순교자들을 승암산에 모시면서 신도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며 생긴 이름이다. 모두네 신부는 1908년 오늘의 전동성당 기공식을 갖고, 성당 건축에 사용할 목재를 벌목하기 위해 승암산 11정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모두네 신부는 자신이 죽으면 그 산에 묻히고자 하였다

1914년 뜻하지 않게 완주군 이서면 제남리 바우백이에 묻혀있던 유항검 가족을 이장해야만 하게 되었다. 일본인 '기바'가 그곳에 과목장을 만들 계획으로 묘의 연고자를 찾았다. 그래서 제남리 공소 교우들이 이 사정을 본당 신부에게 급히 전하였다. 모두네 신부는 1914년 전동 회장단과 함께 사순절에 파묘하여 성당 대청에 모셨고, 부활절을 지내고 4월 19일 현재의 자리에 안장하였다.

모두네신부는 자신이 묻히기를 원하던 산에 일곱 순교자를 먼저 모셨다. 모두네 신부와 전동 신자들은 순교자들을 높이 공경하던 신심대로 승암산 정상에 모신 것이다. 일곱 순교자를 모신 후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앓았고, 이 산을 자연스럽게 치명자산으로 부르게 되었다. 승암산은 치명자산으로 불리면서 천주교 신앙의 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승암산은 역사문화적 의미가 깊고, 오랫동안 전주사회의 정신적·종교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역사 문화적 위치

통과 천주교 -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연구소장)

쌍백합 제3호(2003/겨울)에서 발췌

2. 전동성당 터와 오목대

오목대는 전주의 주산(主山)인 승암산의 발치에 있다. 오목대는 승암산의 동쪽에서 흘러내린 산줄기의 지기(地氣)가 멈춘 곳이다. 모두네 신부와 전동 신자들은 본래 오목대에 성당을 짓고자 하였다. 모두네 신부는 1896년 12월 3일 뫼텔주교가 전동성당을 사목방문한 기회에 뫼텔주교를 오목대에 모시고 갔다. 뫼텔 주교는 일기에 썼다.

“2시경, 우리는 읍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라갔다. 모든 것이 자세히 보였다.”(1896년 12월 3일자) 모두네 신부는 이곳에 성당을 지으면 어떻겠는가 주교의 의향을 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뫼텔주교는 “굳이 여기에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지(基地)에 짓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전라도 전교약기))

천주교에서 오목대에 성당을 짓고자 한다는 소문이 부중에 번지자 관민 사이에 반대의 여론이 컸다. “이 대웅부(大雄府) 주룡(主龍: 主山の 산줄기)에 천주당을 짓는 것은 만만코 못될 일이라”는 것이다. 1897년 말(?) 이완용은 전라감사로 부임하여 전주 사회의 여론을 듣고, 서둘러 오목대 복판에다가 정각을 지었다고 한다.

3. 전주의 역사문화 공간 분포

역사가들은 전주의 역사문화 공간분포를 후백제 왕도유적과 조선왕조의 관향유적, 그리고 근대변혁운동유적 등 셋으로 묶고 있다.

1) 후백제의 왕도유적으로는 동고산성의 후백제 왕성 및 도성유적으로, 그리고 동고산성에서 옛 전주공전과 전주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후백제에 만들어진 성(城)의 선을 따라 구상한 것이다.

2) 조선 왕조의 관향유적으로는 전주읍성을 중심으로, 풍남문에서 경기전 - 한옥마을 - 오목대 - 향교지역이다. 이 공간은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공간이다.

3) 근대변혁운동유적으로는 동학농민전쟁이 관계되는 삼천동에서 완산칠봉 - 서문 - 전라감영의 공간이다. 또 하나는 천주교 역사와 관계되는 공간이다. 즉 숲정이성지에서 서천교(조윤호 성인 순교터) - 초록바위(전주교 싸전다리, 남종삼의 아들 명희와 흥봉주 아들의 수장터) - 전동성당(남문 밖) - 치명자산으로 이어진다. 천주교의 역사문화 공간은 전주의 외곽문화공간으로서 성지들이 한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새 가톨릭센터의 입지 성격

새 가톨릭센터(구 전주공전) 자리는 후백제 동고산성의 초입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후백제 문화단지 등과 연결하여 있을 뿐 아니라 조선왕조문화중심 육성지역인 한옥마을과 바로 인접하여 있고 또한 전동성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치명자산 성지, 나아가서 천주교 성지들과 연결되어 있다.

전주사회의 젊은 사학자들은 견훤 궁터의 초입에 있는 구 전주공전의 역사문화적 입지 때문에 이 터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연구 노력한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력 부족으로 젊은 학자들의 꿈이 무산되었다. 어떤 역사가는 천주교 소유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 까닭은 승암산이 이어 온 정신문화가 상업주의자들의 치부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천주교구의 지난날을 회고할 때 오목대에 성당을 세우려던 계획이 구 전주공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구 전주공전의 매입은 오목대에 이루지 못한 계획을 구 전주공전 터에서 이룬 것이다. 천주교구가 이 터를 매입함으로써 전주의 주산(主山)인 승암산(치명자산) 품안에 자신의 터전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내어 놓았을 때 비로소 커질 수 있습니다!

아세요? 사랑짓는 요십이.....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할 때 가끔 상상해 보곤 합니다. 만약 그때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가진 것을 내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까 하고,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놓았던 아이의 용기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된 것이 아닐까?

7월에는 김제 용지면 신임공소의 교육관과 구 수녀원의 방수공사와 외부 도장 공사를 포함해 내부 마무리까지 맡김히 마쳐 농촌 공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8월에는 순창 복흥 공소 어린이 집이 2005년 폭설로 조립식 구조 건물의 지붕이 기울어 위험하던 것을 지붕을 걷어 낸 후 보강, 재시공을 했고 주방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어린이집에 주방을 증축해 주었다. 성탄절에는 진안 동향면 대량리에 홀로 사시는 이 마리아 할머니(81세) 집이 너무 넓어 겨울을 날 수 없다는 딱한 소식을 진안본당 주임 신부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바닥을 고른 후 콘크리트를 맡김히 깔고 주거용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따뜻한 보금자리를 성탄 선물로 드렸다. 사랑짓는 요십이가 2006년 4월 시작된 이래 벌여온 활동이다. 사랑짓는 요십이 회장님으로부터 2006년 활동한 사진과 자료들을 보며 설명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활동 모두가 후원금 회원 15여명과 활동회원 25명, 합쳐서 40여분이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부터 출발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다.

이제 이 사랑짓는 요십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고 한다. 2007년에도 이주민 회합실 공사와 새터민(탈북자) 방풍시설 공사 그리고 어은동 공소 신축공사 등이 요십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려운 농촌 본당과 공소 사목, 이주 노동자, 이주민 등 사회의 외곽지대 사목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봉사’ 하면 자식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봉사 하면서 살아야 겠다 하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뭔가 준비한 다음 봉사를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개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수가 많다. 봉사는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사랑짓는 요십이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목수나 미장 건축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들

전문적인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술이 없어도 좋다. 봉사자들을 나르는 차량봉사에서부터 간식, 식사, 하다못해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자. 내가 내어놓는 작은 시간과 노력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취재 : 김동욱 기자】

- 후원계좌 : 전북은행 604-13-0328504
김봉술 신부(사랑짓는 요십이)
- 노력봉사 하실 분 : 박종구 바드리시오 회장님께
(017-606-7479)
- 사랑짓는 요십이 카페
<http://cafe.daum.net/jjcaatholic>

‘영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서석희 신부(홍보국장)

영화는 움직이는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술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영화매체는 1896년 탄생한 이후로 10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왔을까?’는 신앙인으로서 한번쯤 갖게 되는 의문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영화역사 110년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주인공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영화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수난극(Passion Play)>이 20세기가 되기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중에 <수난(La Passion, 1896)>은 최초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생애영화로 상영시간이 5분이며 12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모두 흑인으로 나오는 <십자가의 색깔(Color Of Cross, 2006)>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그 내용이나 모습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모되어 왔다. 내용에 따라서는 복음을 서술한 복음가의 시각이나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 모습으로 해석되고 보여 왔다. 여러 관점에서 ‘예수님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변모해왔나?’를 관찰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읽고 이해한다.’는 문자시대의 문화 환경과 ‘보고 느낀다.’는 이미지로 표현되는 전자시대의 문화 환경에서의 예수님의 변모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더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대화가 거의 없다. 좀처럼 얼굴이 나오더라도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해야 할 경우이다. 아마 거기에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권위에 대한 외경과도 같은 것이다. 영화 <벤허(Ben Hur, 1959)>, <바랍바(Barabbas, 1962)> 등은 예수님의 얼굴이 안 나오고 그 뒷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 또한 예수님의 얼굴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은 마치 책을 읽고 넘기는 듯한 ‘사건전개의 서술’이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왕중왕(King Of King, 1961)>이다. 그런데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나오는 예수님 관련

영화들, 뮤지컬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irst Superstar, 1973)>, <나자렛 예수(Jesus Of Nazareth, 1977)>, <가든 오브 에덴(The Garden Of Eden, 1999)> 등은 예수님의 얼굴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인간적 고뇌 등을 묘사하면서 사건서술식이 아닌 관객들로 하여금 감정의 공유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수님을 신비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분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체험하자는 것이다. 급기야 2004년도에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Passion Of The Christ, 2004)>는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의 고통을 실제로 옆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몸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 실제로 관객도 함께 고문당하는 느낌이 아주 리얼하게 와 닿는다. 이 영화는 실제로 예수님시대의 언어인 아람어와 라틴어를 구사하지만 여느 영화에 비해 대사도 많지 않고 몸으로 섬세하게 보여주며 관객이 마치 그 현장에 서서 함께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며’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101년의 영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는 ‘말하고 들려주는 서술’보다는 ‘몸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것’ 대한 변화이다. 점차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영상문화 속에서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관객들, ‘서술’보다는 ‘보는 것 그 자체’에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공유하려는 관객의 변화도 함께 볼 수가 있다. 한편 이러한 문화 현상이 보여주는 의미는 ‘읽고 이해한다.’에서 ‘보고 느낀다.’로의 변화이며, 사목현장에서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간 보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다시한번 보는 것도 사순절을 은총의 시기로 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변모되어왔을까? 그럴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시간도 좋은 기도의 시간이 될 것 같다.

교구장 일정

- **춘계 주교회의**
3월 12일(월)~16일(금)
- **금마성당 견진성사**
3월 1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3월 12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콘비벤자**
3월 12일(월) 오후 7시 가톨릭센터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3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사제 아버지회 월례모임**
3월 15일(목) 오전 11시 초남이 성지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익산 월례미사**
3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영등소라
- **익산 하나회 미사**
3월 18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교육 · 피정 · 연수

- **빈첸시오의 집 후원 회원 자원봉사자 사순 일일 피정**
3월 12일(월) 오전 10시 빈첸시오의 집(경당) 문의 - 262-8484
- **천호 피정**
3월 13일(화) 오전 10시 천호 피정의 집
- **성심여고 신자 전체 피정**
3월 17일(토)~18일(주일) 해월리
- **전례봉사자 교육**
3월 18일(주일) 오후 2시 윤호관

원평 성당 배나무 분양

본당신자들 직접 경작합니다.
· 문의 : 원평 성당 063)543-0881
· 분양소식 : daum 카페 원평성당 배cafe. daum.net/wonpyeongbae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매월 둘째 주일
· 장소 : 광주 가르멜 수도원
· 문의 : 061-334-7415 010-3169-7416
cafe. daum.net/wowcarmel

- **홍분분과 연수**
3월 18일(주일) 오후 2시 센터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 사랑의 다리 후원회원 피정**
일시 : 3월 26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제 :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인원 : 선착순 100명
문의 및 신청 : 사회사무국(284-5290)
* 당일 버스 전동 성당 오전 8시 50분 출발

기타

- **세실성가대 단원모집**
대상 : 60세 이상 남녀 어르신 (예비신자 가능)
연습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가톨릭센터 별관 1층 회의실
- **금상동 성당 전화번호 변경**
사제관 245-6448
사무실 245-6446
F A X 246-6447
- **2007년도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 강좌(1차)**
· 주제 : "영 · 유아기 자녀와 부모의 대화"
· 일시 : 3월 20일, 27일, 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 대상 : 자기 이해와 부모 자녀관계에 관심이 많은 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참가비 : 30,000원
· 신청 접수 및 문의 : 교구 가정사무국 285-0041 FAX 285-0049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명	모임 일시	모임 장소	문의
사랑의 씨든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3-281-0441
성바오로딸수도회	첫째 (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딸 서원	063-252-3398
올리베라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콘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복흥공소	063-653-8004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창인동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익산)	둘째 주일 오후 2시	익산 성모병원	010-7250-7049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산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들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신사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	넷째주일 오후 3시	아중성당수녀원	016-649-2045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울 길음동 본원	02-919-2754
까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성소국	011-9852-9817
관상 · 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성가정 카푸친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4시	동산동 아이고의 집	063-214-4041

- **제3기 신앙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일정 : 3월 24일(토), 25일(주일) 오전 9시~오후 5시 센터 3층
· 대상 : 성지 안내 해설 봉사에 관심있는 신자
· 제출서류 및 참가비 : 지원신청서, 사진(명함판) 1매, 20,000원
· 신청 접수 및 문의 : 3월 20일(화) 교구청 사무국 FAX(285-0049)나 우편 접수
* 지원신청서는 사무국 홈페이지 (<http://jjsamok.com>)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 전문 봉사자 교육

- 교재 : 새로운 성경 공부 '구약편'
- 대상 : 수도자, 통신성서교육원 6년 졸업생, 각 교구 신학원 졸업생, 타 성경 단체에서 5년 이상 공부하신 분
- 기간 : 12주 코스(4월 11일~6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참가비 : 15만원(교재 및 중식비 포함)
- 입금계좌 : 국민 017-25-0016-529 농협 171104-51-007245 (입금 후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전주 중앙 성당
- 신청 : 바로로팔 서원 (성바로로팔수도회 통신성서교육원)
- 문의 : 063) 252-3398, 278-0814

3월 좋은 영화 위대한 예수의 생애

일 시 : 3월 14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90분 / 관람비 : 천원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 625-0091 사무실 : 631-0091 주임신부 : 김 의택
F A X : 633-0081 수녀원 : 635-0091 서록희장 : 김 기영

- ◎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냅니다 : 매일미사, 매일 묵상집을 읽고 생활합니다
- ◎ 환영 : 예비신자 인교를 환영합니다!
- ◎ 성전 축성식(24일 전10:30) 준비에 우리 모두 참여합니다!
- ◎ 이마트 이용시 영수증을 본당이름으로 적립해 주세요!
- ◎ 십자가의 길 책자 사무실 판매(2천원씩)
- 1. 사순특강 : 16일(금) 저녁 미사 후, 강사 : 김진화 신부님
- 2. 벤야민회 14일(수) 후 8시 / 제대회 16일(금) 오전 미사 후
- 3. 감사헌금 : 김억춘 5만, 임순열 5만, 익명 182,570원
- 4.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 단 비키기 : 1,158,493단(+ 5,360단)
- 5. 성전신축헌금 : 익명 5백만, 한수경 100만, 김희정 60만, 익명 10만
- 지난주 봉헌금 : 1,058,000원 ■ 교무금 : 2,143,000원

무주

주임신부 : 322-2308 사무실 : 324-0555 주임신부 : 이상용
유지원 : 324-3555 수녀원 : 322-2399 서록희장 : 김 의택

- ◎ 성서읽기 : 3월 둘째주간-잠언22장~31장
- ◎ 사순절특강 : 교중미사중(김안나 수녀님)
- ◎ 중등부 주일학교 부모모임 : 3월15일(목) 후7시 미사 후
- ◎ 병인의나눔 꾸리아 아치에스행사 : 3월16일(금) 전10시 미사 후
- ◎ 성당청소 : 3월17일(토)- 윤교, 죽산반
- 1. 모임 : 반장모임, 올프레야 - 교중미사 후
- 2. 금주전례 : 해설-김연홍, 독서-강원석, 김순자, 봉헌-전순이, 조미자
- 3. 차주전례 : 해설-김기욱, 독서-김희석, 김은경, 봉헌-김태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675,000원 ■ 교무금 : 2,077,000원

순창

주임신부 : 653-1004 사무실 : 652-1004 주임신부 : 송 윤석
F A X : 653-0414 수녀원 : 653-3135 서록희장 : 정 윤필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6521004

-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집니다.
- ◎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9시30분 십자가의 길
- ◎ 예비자교리 매주 : 주일반-주일 오전9시, 목요일반-저녁미사 후
- 1. 금주모임 : 여성분과, 요새화-미사 후
- 2. 차주모임 : 테레사화-미사 후, 성모회-21일(수)미사 후
- 3. 청소 : 금주-다윗의 탑, 차주-사랑하을 어머니
- 4. 차량봉사 : 금주-김진한 김희중, 차주-오용호 정준일
- 5. 감사헌금 : 권영란(수산나)
- 지난주 봉헌금 : 1,014,700원 ■ 교무금 : 1,618,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 633-1004 사무실 : 633-4004 주임신부 : 박성팔
유지원 : 633-4005 수녀원 : 626-1004 서록희장 : 영 장석
홈페이지 : http://www.ssangkyo.org

- ◎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루카 13,5).
- ◎ 보속과 재계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 ◎ 사순절 전 신자 피정 : 18일(일) 후 1시 ~ 5시,
※ 주제 - 은혜로운 구원의 때, 방교인 신부님(예수고난회)
- 1. 판공성사 : 13일(화)부터 매 미사 30분전에 있습니다.
- 2. 새로 나는 성서 공부 : 15일(목)부터, 매주 목 전 10시~11시30
- 3. 불성체 : 15일(목) 후 1시 30분부터 -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4. 성지순례(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 5월 25일 출발 - 3월 11일까지
- 5. 센타 신축헌금 : 신입액-159,724,000원, 납입액-122,310,000원
- 6. 감사헌금 : 강경숙-5만, 송동순-3만
- 지난주 봉헌금 : 1,930,300원 ■ 교무금 : 3,127,000원

진안

주임신부 : 433-0750 사무실 : 433-2541 주임신부 : 정 성수
F A X : 433-7599 수녀원 : 433-1531 서록희장 : 구동수
인들광소 : 433-3177 유지원 : 433-2293

- ◎ 사순절 돼지 살찌우기 - 동참합니다.
- ◎ 십자가의 길 - 화, 금 미사 30분전
- 1. 금주 ① 11일(일) 이명서베드로회, 예비신자교리 시작(전9시)
② 14일(수) 공소소공동체모임, 대견회(후7시)
③ 15일(목) 미사후 전례교육 ④ 17일(토) 만나회
- 2. 차주 : 20일(화) 성모회
- 3. 금주판공 ① 13일(화) 9:30 어은, 중리 ② 15일(목) 10시 소토실
③ 16일(금) 12시 평촌, 머우내, 동구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 644-9386 사무실 : 642-6319 주임신부 : 서광석
F A X : 642-6319 서록희장 : 변용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 198,634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 통독 합니다.
4. 주일미사 30분전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5. 금주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변용섭, 이영자
6. 차량봉사 : 이기을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7. 차주전례 : 해설 - 문정희, 독서 - 박태규, 김양래
8. 차량봉사 : 김진태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 643-3661 사무실 : 642-2164 주임신부 : 박종중
F A X : 642-2164 수녀원 : 643-3660 서록희장 : 노재진

1. 공소미사 ① 강덕-오늘 후7시 ② 삼갈-18일(일) 후6시
2. 혼배성사 : 오늘 12시30분(황수봉 로렌조, 이복순)
3. 본당설립 50주년 기금 : 이명자(로사)-3만원, 누계 - 62,174,131원
4. 감사헌금 : 배계순 3만원, 조진규 2만원, 박병연 5만원, 익명 50만원
5. 구역모임 ① 14일(수)-관촌1, 2, 3 ② 16일(금)-관촌4, 5
6.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신평 ② 16일(금)-임실1, 6 ③ 18일(일)-청용
7. 차주전례 ① 해설-황연옥 ② 독서-신태근, 이창호 ③ 봉헌-임옥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821,500원 ■ 교무금 : 954,000원

장계

주임신부 : 353-0610 사무실 : 351-0111 주임신부 : 엄기봉
F A X : 351-0605 수녀원 : 353-0611 서록희장 : 이상화

- ◎ 오늘은 사순 제3주일, 조선신자 초대주일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① 금요일 금육제 ② 금요일 십자가의 길 미사전(9시 30분)
- ◎ 구역미사 (신동2구역) 16일(금)저녁8시, (동남동구역) 23일(금)저녁8시
- 1. 성서 통독반 모임 : 매주 수요일 저녁8시
- 2. 애령회원 교육 : 오늘(11일) 후 2시 서학동성당
- 3. 주일학교 토(후)3시 부모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4. 반모임 : 16일(금) 삼봉, 금곡, 망남, 무봉, 동정대, 계북, 계남
- 지난주 봉헌금 : 596,600원 ■ 교무금 : 435,000원

장수

주임신부 : 351-8888 사무실 : 351-2264 주임신부 : 정진봉
F A X : 351-5226 수녀원 : 351-1228 서록희장 : 박동표

- ◎ 사순기간동안 고백성사는 판공성사로 처리(성사표지참)
- ◎ 공소 판공일정-18일(상동), 25일(번암), 27일(덕산), 28일(하동), 30일(수분)
- ◎ 사순기간동안 매 금요일 전10시(미사30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
- ◎ 예비자교리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후8시) 소성당
- ◎ 성서통독 - 매주일미사 30분전(성서 지참)
- 1. 금주참여공소 : 번암, 차주-수분
- 2. 차주공소미사 : 상동 3. 금주전례 : 이유미, 차주-김호준
- 4. 금주독서 : 김호준, 임옥주 5. 차주독서 : 정연수, 최선영
- 6. 금주봉헌 : 김삼석, 김옥순 7. 차주봉헌 : 장재구, 최임주
- 8. 차량봉사 : 금주-박종기, 차주-김호준
- 지난주 봉헌금 : 365,500원 ■ 교무금 : 843,000원

4. 차주판공 ① 20일(화) 12시 두원 ② 21일(수) 12시 부귀지역
③ 22일(목) 12시 선인동 ④ 23일(금) 12시 동향, 안천
⑤ 24일(토) 주일학교 판공
5. 교구공 미수원납고 교구공 월납하여 본당재정에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6. 산악회 가입하실 분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산행요일은 월요일)
7. 교구설정 70주년 기념미사 및 교구청사 축복식에 참석하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23,000원 ■ 교무금 : 1,275,000원



초대합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요한 17,21)

우리 교구가 자치교구 설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새 교구청을 마련하였습니다.

‘70주년 기념미사 및 교구청 축복식’에 함께 해 주시고
교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 미사 및 축복식 - 오후 2시

• 축하식 -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전주교구청 광장

전주시 남노송동 리베라 호텔 맞은 편(구 전주공업대학)

* 축하 음악회 : 교구합창단 - 4월 12일(목) 오후 7시, 전동성당

창 세 기 - 4월 14일(토) 오후 7시, 전동성당

천주교 전주교구 설정 70주년 · 천주교 전주교구청 축복 기념

하나되게 하소서